







Z세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Gen Z in the Workplace)



Z세대는 미래의 얼굴이며, 이 세대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함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25세이하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 불안에서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제 다가오는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를 선도하고 문화가 어떻게 국민들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Gen Z are the face of the future, and to attract and retain talent of this generation you will need to lead with culture. These 25-and-unders know what they want and aren't afraid to demand it. They've also experienced a lot of turmoil from social unrest to the pandemic and now a looming recession, so they are looking for organizations to lead with culture and understand how that culture impacts the wellbeing and satisfaction of their people.

문화로 이끈 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문화를 우선시하고, 사람들의 복지와 만족에 대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통일된 경험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모든 부분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를 이끄는 것은 Z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일은 그들 자신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삶의 다른 요소들만큼 의미 있고 만족스러웠으면 좋겠고, 두 가지를 완벽하게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Z세대와 크게 공감하는 문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계획과 일상적 순간 모두를 통해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What exactly does lead with culture mean? It means making culture a priority, recognizing its importance to people's wellbeing and satisfaction, and embedding culture into every part of the organization to create a unifying experience for everyone. Leading with culture is vitally important to Gen Z because for them, their work is an extension of themselves. They want their work to be as meaningful and satisfying as the other elements of their life and they want a seamless integration of the two. To achieve this you can begin by focusing on the culture elements that resonate highly with Gen Z and work to solidify your culture through both significant initiatives and everyday moments.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 요소는 무엇입니까?

(What culture elements are most important to Gen Z?)

직장에서 Z세대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요소에는 유연한 근무, 전반적인 웰빙에 대한 관심, 경력 개발, 그리고 형평성,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가치에서 비롯되며, Z세대를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 중 하나입니다.

The culture elements that resonate highly with Gen Z in the workplace include flexible work, attention to overall wellness, career development and an unwavering commitment to 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These elements stem from your values, with values-alignment being one of the strongest determinants for attracting and retaining Gen Z.

목적 중심 가치 (Purpose Driven Values)

Z세대는 너무 자주 게으른 세대로 치부됩니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가 입소문을 타고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기를 바라 며 세계를 여행하고 틱톡 비디오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Z세대는 일하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대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는 강한 가치를 가진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로 이끄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기후 변화, 빈곤, 지속 가능성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도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시장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더 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업이 운영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리더로서,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이 이러한 가치를 일관되고 의미 있게 반영하고 이러한 가치가 운영의 모든 측면을 통해 통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Gen Z is too often written off as a lazy generation – they only want to travel the globe and make TikTok videos hoping one will go viral and make them famous. The truth is, Gen Z do want to work, but they want to work with purpose. They want their work to mean something and most often this means working for an organization that has strong values that are aligned with making the world better. As you think about leading with culture take time to examine your values and make a decision about what you want to be in the market and how you want to operate in the larger community through your commitment to broad societ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poverty, and sustainability. As a leader, ensure your actions and decisions reflect these values consistently and meaningfully and that they are integrated through all aspects of your operations.

유연한 근무 (Flexible Work)

우리는 팬데믹이 노동력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Z세대는 유연하고 유동적인 노동 문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 작업과 하이브리드 옵션은 Z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기술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연한 선택사항을 갖추는 것은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 책임을 직원들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Z세대의 독립적인 성향과 신뢰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Z세대에게 그들의 스케줄에 대해 더 많은 자기 결정권을 줄 때, 이것은 그들이 최고의 작업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영역에서 문화를 선도한다는 것은 작업 현장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응적인 일정을 수립하거나, 완전히 원격 작업 환경을 지원하거나, 완전히 유연한 타임오프 정책을 수립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유연한 작업 관행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직장 유연성의 핵심은 모든 직원이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선택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We know the pandemic has changed the workforce and Gen Z is front and centre with its desire for a flexible and fluid work culture. Remote work and hybrid options are very important to Gen Z. They have grown up with technology and they understand its capacity to enable work from everywhere. Having flexible options puts the responsibility in your people's hands to decide where and when work gets done. This has the added benefit of satisfying Gen Z's independent streak and desire to be trusted. When you give Gen Z more self determination over their schedule this translates to trusting them to do their best work period. Leading with culture in this area means embracing flexible work practices throughout the organization whether that means creative and adaptive scheduling for people that must attend the worksite, supporting a fully remote work environment, or instituting a fully flexible time-off policy. Key to successful workplace flexibility is making sure all of your people have access to the flexible options that work for them.

웰빙 (Wellness)

Z세대에게 웰빙은 전체론적이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광범위한 실천을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은 특히 중요하며 Z세대는 정신 건강 문제의 안좋은 인식을 제거하고 정신 건강 계획을 촉진하는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분야이며 유연성과 충분한 휴가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문화와 함께 이끌 때, 체육관 회원권, 건강한 간식에 대한 접근, 명상과 반성을 위한 조용한 공간처럼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건강 관련 혜택과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조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Gen Z, wellness is holistic, meaning i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practices geared toward physical, mental, emotional and spiritual health. Mental wellness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Gen Z are ardent supporters of de-stigmatizing mental health issues and promoting mental health initiatives. Stress management is another area of high importance and is correlated with the need for flexibility and sufficient time off. When you lead with culture this means developing organizational policies that care for your people in all aspects of their life in addition to the health related benefits everyone appreciates like gym memberships, access to healthy snacks, and quiet spaces for meditation and reflection.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

Z세대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25년 이상 한 조직에 충실하고, 연금을 받고 나서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Z세대는 일하는 대로 사는 것을 선호하며, 그것은 과거의 앞만보고 달려가는 업무에 비해 그들에게 적응하는 우여곡절과 함께 흥미롭고 자극적인 업무 과제를 제공하는 진로를 의미합니다. 문화를 선도하는 조직은 책임과 리더십의 전통적인 증가 외에도 교차 훈련, 부서 이동, 다학제 팀 기회 및 지리적 이동을 포함하는 경력 개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Gen Z is all about forging a career path that satisfies them at all stages of life. They have seen their parents stick with one organization for 25+ years, earn a pension and only then start 'living'. Gen Z prefer to live as they work and that means a career path that provides interesting and stimulating work assignments with twists and turns that adapt with them, versus the straight-shot, upward or bust, career progression of the past. Organizations that lead with culture will develop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that includes cross training, department shifts, multidisciplinary team opportunities, and geographical moves in additional to the more traditional increases in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When your culture values career changes and skill acquisition as much as advances up the org chart, Gen Z will be inspired to move and grow with you allowing you to retain their talent and preserve their organizational knowledge.











다양성, 평등 및 포용(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Z세대는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하며, 고학력입니다. 그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업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비포용적 관행의 폐해를 보았고 편협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며 모든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대표 리더십은 모든 직원이 조직 결정 방식과 회사의 방향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책과 가치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다양성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함께, 임원진들이 공장의 작업 현장에서까지 강연을 진행하고 DEI 원칙이 매일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Gen Z is itself very diverse, and they are highly educated. This means they demand a workplace that reflects the diversity they see around them and that is inclusive for everyone. This generation has seen the detriments of non-inclusive practices and they have very little tolerance for the intolerant. They also value fairness and equity in the workplace and want to see everyone have the same opportunity to achieve their goals. Representative leadership is important as is ensuring all employees have a voice in how organizational decisions are made and the direction of the company. To lead with culture here, examine how well your polices and values are aligned with your commitment to diversity and make an effort to walk the talk from the C-Suite to the shop floor and ensure DEI principles are reflected in everyday moments.

Z세대는 조직들이 실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조직이 문화로 이 끌기를 희망만 하기보다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젊은 근로자들에게,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그들의 만족과 복지에 있어서 작업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그 결과 예고되고 있는 새로운 관행은 모든 세대에 대한 보너스이며, 현재 훌륭한 작업장이 한동안 전념해 온 것입니다. Great Place to Work는 문화와 함께 이끄는 데 필요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작동하는 것을 보존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해야 할 최선의 조치를 안내합니다.

Gen Z is changing how organizations think about their people practices mainly because they are demanding, rather than hoping, their organizations lead with culture. For these young workers, leading with culture is an expectation because they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work environment is to their satisfaction and wellbeing. The new practices being heralded in as a result are a bonus for all generations and ones that great workplaces have been committed to for a while now. Great Place to Work gives you the tools and data you need to lead with culture - and guides you on the best actions to take to preserve what's working, improve what isn't, and promote job satisfaction for all.

Great Place to Work 설<mark>문조사를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직원 참여도를 높이고 최우</mark>수 기업 리스트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If you're not already using the Great Place to Work survey, reach out to us to learn about how we can help you improve employee engagement and become eligible for one of our Best Workplaces lists.